

#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The Effects of the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s of Big and Small-Medium Businesses

이서영(Seo-Young Lee)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겸임교수

## 목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선행연구 검토                | 참고문헌     |
| III.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현황 | ABSTRACT |
| IV. 연구의 모형과 실증분석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불안정한 시계열을 적용할 경우 통계분석의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DF 방식을 이용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1)인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1)인 변수들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검정에 의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수액 간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에는 수출보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보다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수출보험, 수출공급, 수출촉진, 공적분검정

## I. 서론

WTO 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수출 진흥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보험은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규제를 피하면서 수출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수출보험은 WTO체제 하에서 효용성이 큰 수출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수출확대를 꾀하는 등 무역진흥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국들간 수출 경쟁이 글로벌 수출보험 대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미국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 보증규모는 2007년 126억 달러에서 2009년 21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2년 새 67% 급증시켰으며, 같은 기간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수출보험실적도 396억 달러에서 1,166억 달러로 3배가량 늘어났다. 유럽 국가들도 수출보험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억 파운드를 확충했고, 독일은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1,170억 유로로 상향했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 기업의 투자위험을 수출보험으로 줄여주는 '인프라 수출 종합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보험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출보험의 전담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위험회피 수단 지원을 통해 수출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커버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촉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학계에서도 수출보험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수출에 미치는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에 관한 문헌연구와 계량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보험에 관한 계량분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출보험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연구보다는 세부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수출보험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수출보험이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분명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면에서 차이가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차별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을 크게 대기업에 의한 부분과 중소기업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출보

험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수출보험 정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면 제한된 수출보험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출범한 시점인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적용할 것이며,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변수 간의 장기균형관계 성립여부를 파악하여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고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수출보험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술할 것이며,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제IV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수출보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실증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국외연구

Sandra M. Huzagh and Mark R. Greene(1982)는 수출제품, 수출경험, 연간 총 판매액이 수출기업의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하여 수출기업의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 수출보험 활용율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0년 이상 수출한 기업들은 수출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총 판매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보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고, 수출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고 수출경험이 없는 수출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출보험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Huszagh, Sandra M. and Greene, Mark R., 1982: 256-268).

Dewit(1991)은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수출보험이 정부의 보조금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의 의미하였다. 따라서 Dewit

의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을 수출보험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수출보험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본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수출에서 수출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12% 정도이며, 이들 국가들의 수출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조정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출보험이 국제무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제무역시장에서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을 분산하는 그 본래의 기능에 의하여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Abraham and Dewit(2000)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벨기에 정부가 수출보험을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벨기에 수출기업은 수출보험에 큰 폭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벨기에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에 수출보험 제공 시 수출시장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F. Abraham and G. Dewit, 2000: 5-26).

Mah(2003)는 영국의 수출보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 모형설정에 있어서 수출공급함수를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에는 수출공급(수출액/GDP)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에는 수출상대가격과 수출보험변수로서  $1 + \text{수출보험보조금율}(\text{수출보험금} - \text{수출보험료} - \text{회수금}) / \text{수출액}$ 을 선정하였다.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단위근 검정 결과 시계열이 I(1)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1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OLS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변수는 수출공급 증진에 유의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Mah의 연구에서는 영국의 수출보험은 수출공급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Jai S. Mah, 2003).

Mah(2006)는 일본의 수출보험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수출보험보조금이 일본의 수출공급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종속변수에는 수출공급(수출액/GDP)을 독립변수에는 수출상대가격, 수출보험보조금, 국내수요압력(실업률)을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본의 수출보험은 수출공급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일본의 수출보험은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Jai S. Mah, 2006: 646-652).

## 2. 국내연구

박진근(1989)은 수출보험 인수액이 경상수지와 수출보험 이용율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상수지와 수출보험 인수액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고, 수출보험 이용율과 수출보험 인수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 영향력이 수출보험 이용율이 경상수지보다 더 큼을 제시하였다(박진근, 1989: 53-72).

김희국(1998)은 1987년 1분기부터 1997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 벡터 자기회귀모형(VAR : Vector Autoregressive Model)에 의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사용하여 수출에 대한 예측오차의 분산 중에서 수출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부분을 계산하였다.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해 분석한 결과 수출보험의 수출촉진효과가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국, 1999: 16-26).

박현희(1999)는 1971년부터 1998년까지의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출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출량의 변화의 정도 즉 탄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을 하였고, 시계열자료의 안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출수요함수식을 설정하였고,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출가격함수식을 설정하였다. 일반최소자승추정(OLS)과 추정오차의 자기상관관계를 보정하기 위하여 Cochrane-Orcutt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한 결과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박현희의 연구에서 수출보험은 수출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박현희, 1999: 241-255).

이시영·양지환·전성희(2001)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각 국별 수출액과 수출보험인수실적을 적용한 합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에 미치는 수출보험의 영향은 정(+)의 값을 보였고,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값은 0.56을 나타내어 수출보험인수실적이 10% 증가하였을 경우 수출은 5.6%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이시영·양지환·전성희, 2001: 17-39).

김세영·이서영(2003)은 수출보험의 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01년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시계열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0) 시계열이 아니라, I(1)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1차 차분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인수액의 탄력성 값이 0.12로 예상한 부호를 얻었으며,

1% 수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수출증대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김세영·이서영, 2003: 117-134).

이서영(2008)은 수출보험 규모가 가장 큰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와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에 관해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로 선정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출보험 관련 변수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위해 손해율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시계열들은 I(0) 시계열이 아니라 I(1) 시계열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여 변수들간 장기균형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ECM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간의 단기동태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오차수정모형에서 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추정계수가 0.03으로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추정계수가 0.19이지만 10%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설명력이 떨어짐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의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서영, 2008: 495-512).

〈표 2-1〉 국내외 선행연구 비교분석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국 외	Huszagh (1982)	수출보험 활용율에 수출제품, 수출경험, 연간 총 판매액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검정	연구대상기업의 40%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수출보험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
	Abraham (2000)	보험료율, 지역부보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클레임, 외환보유고, 해외직접투자, 수출상대국 소득, 시장점유율 등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OLS분석	무역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벨기에 수출기업은 수출보험에 큰 폭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제시
	Mah (2003)	영국의 수출보험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는 수출의존도를, 독립변수에는 수출상대가격과 수출보험보조금을 선정한 후 1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OLS분석	영국의 수출보험은 수출공급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
	Mah (2006)	일본의 수출보험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종속변수에는 수출의존도를 독립변수에는 수출상대가격, 수출보험보조금, 국내수요압력(실업률)을 선정하여 실증분석	일본의 수출보험은 수출공급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국 내	박진근 (1989)	수출보험 인수액이 경상수지와 수출보험 이용율의 함수라 가정하고 실증분석	경상수지와 수출보험인수액은 역의 상관관계이며, 수출보험 이용율과 수출보험인수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
	김희국 (1998)	수출액과 수출보험인수액과의 관계를 벡터자기회귀 모형(VAR)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수출보험이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5%의 수준임을 제시
	박현희 (1999)	수출보험 인수금액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출수요함수식을 설정하여 OLS분석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제시
	이시영 (2001)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수출보험인수액과 수출상대국의 국민총생산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여 분석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0.56% 수준임을 제시
	이서영 (2008)	수출보험 규모가 가장 큰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와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에 관해서 비교 연구를 하였으며, VECM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간의 단기동태모형을 추정	한국의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보험은 수출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 제시

### Ⅲ.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현황

#### 1. 수출보험의 운영현황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로써 민영보험에서 구제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자 파산의 경우 등에 나타나는 신용위험, 정부의 자금동결이나 전쟁 등에 의한 비상위험, 무역거래의 예측 잘못에 의한 상업위험 등을 보험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험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69년부터이며, 1992년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출범하면서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각종 제도개선, 적극적인 보험운영 등으로 수출보험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보험 인수실적 및 이용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2010년에는 수출보험뿐만 아니라 수입보험제도까지 도입하여 경제성장과 수출에 꼭 필요한 주요 해외자원에너지 및 원자재 등 필수 시설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의 명칭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였다.

수출보험은 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써 일종의 정책보험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수출보험제도의 운영은 정부에서 매년 일정수준의 정부기금을 받아 보험자의 담보능력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고, 기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수출보험법상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는 정부출연금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무역보험공사, 2002: 153).

수출보험운영기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보험 운영기관인 대한재보험공사 시기('69년~'76년)동안에는 정부출연금이 15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수출입은행 시기('77년~'91년)에는 매년 10억 원에서 50억 원 가량 꾸준히 기금출연이 이어져 '80년에는 처음으로 기금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그 후에도 기금출연이 지속되어 5년 후에는 206억 원으로 기금이 확충되었다.

<표 3-1> 수출보험 출자기금 현황

(단위: 천만 원)

연도	정부 출자	기타 출자	연도	정부 출자	기타 출자	연도	정부 출자	기타 출자
1983	100	-	1992	2,000	-	2001	30,000	-
1984	-	-	1993	6,640	-	2002	20,000	-
1985	100	-	1994	8,000	-	2003	27,000	-
1986	100	-	1995	10,000	-	2004	15,000	-
1987	100	-	1996	13,000	-	2005	5,000	-
1988	200	-	1997	18,000	-	2006	5,000	-
1989	1,700	-	1998	40,000	-	2007	2,500	-
1990	700	-	1999	30,000	-	2008	2,500	-
1991	4,290	500	2000	30,000	-	2009	51,000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92년 공사설립 이후 수출보험업무가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기



금출연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92년에는 200억 원, 그리고 '99년에는 초기의 정부출자기금의 1000배에 달하는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98년 이후 정부의 수출보험기금이 대폭 확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내경제의 유동성위기 발생으로 수출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3년을 기점으로 2008년까지는 수출보험기금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수출보험운영기금은 수출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일정 금액이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2002년 이후 총수출보험운영기금 내에서 손실이 생기더라도 그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보험운영기금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은 19개의 보험종목과 1개의 수출신용보증을 합하여 20개의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우선 단기성보험의 경우 수출대금결제 기간이 2내 이 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단기수출보험을 포함하여 6개의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성보험에는 수출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중장기수출보험을 포함하여 8개의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환변동보험, 원자재가격보험, 탄소종합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설립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장기수출보험 등 대기업 위주로 이용되는 중장기부문의 보험제도와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활발히 이용하는 단기부문의 보험제도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각별히 우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단기수출보험에서 수출대금의 회수 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금액 중 무역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최대한도인 부보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대금의 전액으로 상향조정(2007년 4월, 97.5%에서 100%로 조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부담 경감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험요율도 1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10%-20%의 보험료 할인 및 한도책정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김철영, 2008: 37-38).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사에서는 '수출보험 육성대상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7월 도입된 '수출보험 유망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규모는 적으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견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수출보험 육성

대상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수(보증)한도채정과 부보율에서 우대를 받으며 연대보증인 축소, 수출보험 미부보 채권에 대한 추심 요청시 대행 등의 혜택과 함께 보험요율도 제 할인을 적용 후 20%를 추가 할인해주고 있다(한국무역보험공사, 2002: 10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제도를 통해서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출보험의 제도 및 운영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재 다양한 수출보험 종목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단기수출보험과 환변동보험 그리고 중장기수출보험 등 소수종목에 편중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둘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을 진흥하기 위함이라는 비영리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0.24%라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수준의 보험료율로 인하여 한국의 수출보험은 담보력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윤기관김보민, 2010: 177). 셋째, 수출보험기금 담보력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기금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수출보험법상 수출보험기금은 정부출연금인 기금조성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수출보험의 운영실태와 비교해보면 수출보험의 운영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러한 기금부족은 수출보험의 인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수출보험이 다양한 대외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보장을 원활히 할 수 없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수출보험은 소수의 안정적 종목을 우선시 하여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하였다.

## 2. 수출보험의 이용현황

### 1) 수출보험의 인수실적

수출업자들은 해외수입업자 및 수출상대국 정부의 예기치 않은 수출대금 미지급위험을 회피하고자 수출보험에 부보를 하게 된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제거해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자국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출보험의 인수실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 약 1조 8천억 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발족시켜 전담체제를 갖추고 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그리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보험 인수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34조 1천억 원을 인수하여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2000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5% 증가한 35조 9천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인수규모로 세계 수출보험기관 중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간접수출지원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이후로 수출보험인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2000년보다 75% 증가한 62조 8천억 원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91조 6천억 원과 129조 8천억 원을 인수하여 인수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전년도보다 27% 증가한 총 164조 9천억 원(대기업 90조 7천억 원, 중소기업 74조 2천억 원)을 인수하였다.

수출보험의 인수실적 중 대부분이 4가지 종목(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에 편중되어 있다. 이중 중소기업의 인수실적은 대부분이 단기수출보험인 반면 중장기수출보험은 2% 미만이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보험 중에서 일반 소비재의 수출은 제작 및 대금회수에 단기간이 소요되어 주로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지만, 자본재의 수출은 제작 및 대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장기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표 3-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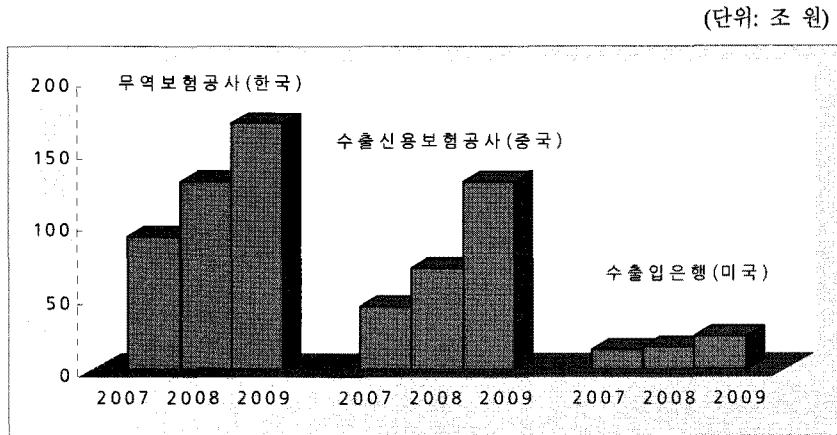
(단위: 천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206.7	238.1	289.3	358.8	402.3	480.3	523.1	758.1	907.0
중소기업	166.5	182.3	212.0	270.1	329.2	346.4	393.2	539.9	742.6
총 인수액	373.2	420.4	501.3	628.9	731.5	826.7	916.3	1,298	1,649.6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의 인수실적 증가와 함께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이 92조 원으로 전년도 보다 8조원 증액하였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30조 원, 170조 원으로 매해 마다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증감내용을 보면 조선업, 플랜트 수출, 해외공사 수주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한도를 확대하였다. 이는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

함이다. 이와 같이 수출보험계약한도를 증가하여 수출기업이 직면한 대외거래의 위험을 담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수출보험 확대정책을 펼쳐 자국의 수출기업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그림 3-1] 주요국의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액

## 2) 수출보험의 활용연향

총 수출액 대비 지원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보험 활용율은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선진국 중심 수출패턴으로 활용율이 5%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2년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 발족하면서 서서히 수출보험에 대한 활용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총 수출의 13.1%를 수출보험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2000년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대기업 수출지원제도(본지사간 신용위험 담보, 무역어음보증)의 중단에 따라 활용율이 전년에 비소 다소 감소한 편이다. 이 시점 이후부터 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표 3-3>에서 볼 수 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율이 20%대에 진입하여 각각 22.7%와 25.1%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6.6%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의 지원규모 확대에 힘입어 2009년의 수출보험 활용율은 35.5%로 선진국의 활용율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3〉 수출보험의 활용현황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8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실적	-	217.0	199.4	195.1	232.1	264.9	288.1	325.6	371.5	422.0	363.5
인수실적	-	28.5	28.1	35.0	41.9	60.3	72.2	86.9	98.6	117.7	129.2
활용율	7.4	13.1	14.1	17.9	18.0	22.7	25.1	26.7	26.6	27.9	35.6

주: 수출보험인수실적은 그해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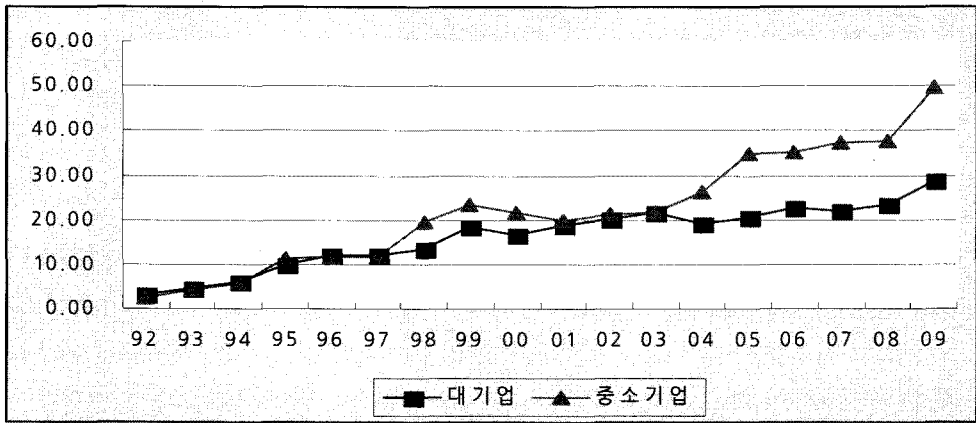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수출보험의 활용현황을 기업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우선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출범한 1992년에는 3.28%의 활용율을 기록한 이후로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35%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대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중단에 따른 활용율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대기업의 수출보험 활용율은 큰 증가세나 감소세 없이 꾸준히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 2.63%에 불과하였던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율이 수출보험공사의 출범과 함께 공사의 적극적인 보험운영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등으로 중소기업의 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2 참조). 특히 1990년대 초반에는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 등의 부족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수출보험의 활용도가 낮았지만, 1998년을 기점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은 대외수출에 있어서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4.89%와 34.97%를 기록하여 높은 수준의 활용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더욱이 2009년에는 활용율이 50%대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견상 꾸준한 성장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분석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이 수출업무 이행능력과 위험관리 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을 감안하여 수출보험법 상 중소기업 우대조항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되었으며, 또한 중소기업 역시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필요에 맞는 수출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등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윤기관·김보민, 2010: 174-175).

(단위: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청.

[그림 3-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현황

## IV. 연구의 모형과 실증분석

### 1. 분석모형 및 자료

수출보험제도는 국내 수출공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출공급함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수출공급은 수출채산성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달러환율의 상승과 수출가격의 상승, 도매물가의 하락으로, 이때 수출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만큼 더 수출금액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수출 공급자에게는 그만큼 더 수출공급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에 있어서 공장가동상태가 좋을수록 수출공급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생산능력이 좋을수록 수출공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요소가격인 노무비와 이자율, 수입원자재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더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수출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수출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수출공급은 증가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순환과정에서 일국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되면 그 나라의 수출공급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내경제가 침체하

면 수출공급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다(L.A. Winters, 1974: 623-625; M.D. Steur, R.J. Ball and J.R. Eaton, 1966: 387).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출보험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수출보험인수액, 상대가격 그리고 국내수요압력(실업률)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통계는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상대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수출물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 그리고 실업률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가격변수들은 수출공급함수이므로 각각 원화로 표시된다. 왜냐하면 수출수요는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국제통화인 달러를 표시하지만, 국내공급은 생산자의 수출채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자국의 통화로 표시 되었다. 추정모형을 다음의 식 (1)과 (2)로 나타낸다. 식(1)은 대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이며, 식(2)는 중소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이다.

$$ESB(t) = a + bISB(t) + cEMR(t) + dRTP(t) + e(t) - \dots \dots \dots (1)$$

$$ESM(t) = a + bISM(t) + cEMR(t) + dRTP(t) + e(t) \dots \dots \dots (2)$$

여기서 *ESB* : 대기업의 수출공급(수출액/*GDP*)

*ESM* :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수출액/*GDP*)

*ISB* : 대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

*ISM* :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

*EMR* : 국내수요압력(실업률)

*RTP* : 수출상대가격(수출물가지수/도매물가지수)

*e* : 오차항

각 변수에는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연로그를 취한다. 위 식에서 추정계수 *b* - *d*는 수출에 관련된 변수의 탄력성 크기를 나타낸다. 추정계수 *b*는 수출보험인수액의 탄력성으로 부호는 정(+)의 부호를 예상한다. 수출보험인수액은 수출업체가 직면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담보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에 따라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사료된다.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에 부보를 많이 할수록 수출기업들에 직면하는 수출위

힘이 줄게 되어 수출공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추정계수  $c$ 는 실업율의 탄력성으로 부호는 정(+)<sup>2</sup>의 부호를 예상한다. 경기순환과정에서 일국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되면 그 나라의 수출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내경제가 침체하면 수출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즉, 수요압력이 증가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요압력이 감소하면 수출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추정계수  $d$ 는 수출상대가격의 탄력성으로 부호는 정(+)<sup>2</sup>의 부호를 기대한다. 국내가격에 비해 높은 수출가격은 수출공급을 증가 시킬 것이다. 즉, 수출상대가격은 국내판매에 비해 유리해지면 수출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 2. 실증분석

### 1) OLS분석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인수액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부호 역시 예상한 정(+)<sup>2</sup>의 부호를 얻었다. 그리고 실업률의 경우에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반면 상대가격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인수액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부호 역시 예상하였던 정(+)<sup>2</sup>의 부호를 얻었다. 실업률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최소자승법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수출보험에 부보를 많이 할수록 수출기업에 직면하는 수출위험이 줄게 되어 수출공급을 증가시킨다 할 수 있다.



〈표 4-1〉 OLS 추정결과

	상수항	수출보험인수액	실업률	상대가격	$R^2$	$D-W$
대기업 식(1)	0.027 (0.51)	0.002 (6.76)***	0.015 (4.25)***	0.04 (1.17)	0.91	1.99
중소기업 식(2)	0.083 (2.98)***	5.750 (2.57)**	0.003 (1.62)*	0.005 (0.25)	0.62	1.53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 )는 t-value를 나타냄.

실증분석결과 수출보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만일 분석에 사용되어진 각 변수들이 불안정한 시계열자료인 경우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자료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변수들이 불안정적인 시계열인 경우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단위근(unit root)의 유무 검정이 필요하다.

## 2) 단위근 검정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근 검정은 ADF(Augmented Dickey-Fuller)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차선택에 있어서는 Akaike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였다. <표 4-2>는 단위근 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은 단위근이 존재하는 시계열임을 알 수 있다. 즉, 각 변수들은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시계열들은 불안정(non-stationary)한 시계열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한편 각 변수의 1차 차분치에 대한 단위근 검정에서는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됨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시계열들은 I(0) 시계열이 아니라, I(1) 시계열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준변수를 이용하여 OLS를 수행한다면 가성회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분하여 단위근을 제거한 변수를 이용하여 단순히 OLS방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장기균형관계의 정보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장기적 균형관계의 존재유무를 판정하기로 한다.

<표 4-2>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ADF Test	
	수준변수	차분변수
<i>ESB</i>	-0.83	-3.01**
<i>ESM</i>	-1.20	-2.92*
<i>ISB</i>	-2.40	-3.10**
<i>ISM</i>	-1.91	-3.15**
<i>EMR</i>	-2.60	-3.35**
<i>RTP</i>	-0.85	-4.04***

주: 1) 단위근 검정방식에 선형추세치는 포함하지 않고 상수항만을 고려함.

2)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함.

### 3) 공적분 검정

관련된 변수들 간에 최소 하나의 공적분벡터가 존재한다면, 관련 변수들이 불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수출보험인수액과 수출공급 간의 장기균형관계의 성립 여부를 점검하고 공적분벡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Johansen(1988, 1991) 공적분기법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표 4-3>과 <표 4-4>는 Johansen의 기법을 이용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증분석에 사용되어진 변수 간의 공적분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공적분 검정결과(대기업의 수출보험)

귀무가설: $r$ =공적분 벡터의 수	Likelihood ratio statistic	추정된 공적분 벡터					Log likelihood
		<i>ESB</i>	상수항	<i>ISB</i>	<i>EMR</i>	<i>RTP</i>	
None At most 1	17.531* 5.333*						-45.523
		1.0	0.035	0.009			
None At most 1	8.423 1.789						14.687
		1.0	1.928		-0.585		
None At most 1	8.682 1.169						58.284
		1.0	-0.443			0.203	

주: 1) 시차적용은 AIC의 적정시차 1을 적용함.

2)  $H_0: \gamma = 0$ 을 검정(귀무가설이 채택되면 공적분 관계가 없음).

3) \*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표 4-3>은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수액, 실업률, 상대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공적분 검정결과를 나타낸다. 검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선 수출공급(*ESB*)과 수출보험인수액(*ISB*) 간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공급과 실업률(*EMR*), 상대가격(*RTP*)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도출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표 4-4> 공적분 검정결과(중소기업의 수출보험)

귀무가설: $r$ =공적분 벡터의 수	Likelihood ratio statistic	추정된 공적분 벡터					Log likelihood
		<i>ESM</i>	상수항	<i>ISM</i>	<i>EMR</i>	<i>RTP</i>	
None At most 1	13.039 2.516						-17.247
		1.0	-0.071	0.002			
None At most 1	9.986 2.374						29.349
		1.0	-0.027		-0.023		
None At most 1	7.589 0.025						73.949
		1.0	-0.167			0.044	

주: 1) 시차적용은 AIC의 적정시차 1을 적용함.

2)  $H_0: \gamma = 0$ 을 검정(귀무가설이 채택되면 공적분 관계가 없음).

<표 4-4>는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수액, 실업률 그리고 상대가격 간의 공적분 검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검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수출공급(*ESM*)과 수출보험인수액(*ISM*)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출공급과 실업률(*EMR*), 상대가격(*RTP*) 간에도 역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정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표 4-3>과 <표 4-4>의 결과를 종합분석 해보면,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OLS분석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지만, 공적분검정 결과에서는 대기업에서만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보다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수출보험의 활용율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로 활용율이 높다하여 수출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보험이 가지고 있는 보험적인 특성상 고위험 국가에의 수출에 대해 수출보험의 효과가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플랜트산업은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출거래가 저위험 국가인 선진국보다는 고위험 국가인 중·후진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플랜트산업의 특성상 이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수출보험을 통해 플랜트 수출이 촉진되어 대기업의 수출보험에 의한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보험은 대금회수에 있어서 고위험 국가에 수출할 경우 많이 이용되어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 의한 상품수출은 단순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제품의 특성상 그 수출지역도 저위험 국가와 고위험 국가에 고루 퍼져 있어 수출보험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수출보험에 관한 연구는 1990년 후반부터 수출에 미치는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에 관한 문헌연구와 계량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보험에 관한 계량분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의 차별적 효과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수출보험제도가 간접적인 무역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부의 운영기금지원 현황 및 수출보험의 활용율 현황 등을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수출공급함수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수출보험에 부보를 많이 할수록 수출기업들에 직면하는 수출위험이 줄게 되어 수출공급을 증가시킨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불안정한 시계열을 적용할 경우 통계분석의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DF 방식을 이용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1)인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1)인 변수들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검정에 의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수액 간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에는 수출보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보다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수출보험의 활용률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로 활용률이 높다하여 수출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출보험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8.1% 증가 한다 제시하였으며, 특히 수출보험의 수출유발계수(탄력성)가 0.58로 수출보험 1조 원 인수시 수출은 0.58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수출유발계수가 0.28로 단기수출보험 1조 원 인수시 수출은 0.28조 원 증가하고,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수출유발계수가 3.54로 중장기수출보험 1조 원 인수시 수출은 3.54조 원 증가함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단기수출보험보다 중장기수출보험이 수출촉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장기수출보험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Ⅲ장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중장기수출보험의 대부분인 95% 이상이 대기업에 의해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보험이 가지고 있는 보험적인 특성상 고위험 국가에의 수출에 대해 수출보험의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의 플랜트산업은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출거래가 저위험 국가인 선진국보다는 고위험 국가인 중후진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플랜트산업의 특성상 이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수출보험을 통해 플랜트 수출이 촉

진되어 대기업의 수출보험에 의한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보험은 대금회수에 있어서 고위험 국가에 수출할 경우 많이 이용되어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 의한 상품수출은 단순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제품의 특성상 그 수출지역도 저위험 국가와 고위험 국가에 고루 퍼져 있어 수출보험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 난 한계점들과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Johansen 공적분기법을 적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과 수출공급 간의 장기균형관계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여 수출보험의 수출에 대한 효과를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좀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이 진행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분석기간이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형추정에 있어서 자유도의 충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VAR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주된 원인이 자유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 참 고 문 헌

- 김기현, “WTO와 수출보험”, 「수출보험」, 통권133호, 한국수출보험공사, 2005.
- 김세영·이서영, “한국의 수출보험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관세학회지」, 4(2), 한국관세학회, 2003.
- 김철영, “수출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우대시책”, 「수출보험」, 통권147호, 한국수출보험공사, 2008.
-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수출보험」, 통권92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
- 박현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4(2), 한국무역학회, 1999.
- 송정석, “한국수출의 독점정도에 따른 수출보험의 수출촉진 효과분석”, 「통상정보연구」, 10(1),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 윤기관·김보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률 제고방안 모색”,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중소기업학회, 2010.
- 이서영, “한일 수출보험과 수출촉진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10(4),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 이시영·양지환·전성희,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역할과 국가위험도”, 「무역학회지」, 26(5), 한국무역학회, 2001.
- 이은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8(1),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장동한·유광현, “중소수출기업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49,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10년의 이야기」, 한국수출보험공사, 2002.
- Abraham, F. and G. Dewit, “Export Promotion Via Official Export Insurance,” *Open Economies Review*, 11,, 2000.
- Brander, J. and Barbara S.,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5.
- Dewit, Gerda, “Export Insurance Subsidization and Undistorted Trade Creation,”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s*, 9610, University of Glasgow, 1996.
- Engle, R. and C. W. Granger,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s*, 55, 1987.
- Faini, R., “Export supply, capacity and relative pric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5, 1994.

Funatsu, Hideki, "Expo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3(4), 1986.

Mah, J. S.,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subsidy on export supply: The experience of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17, 2006.

Mah, J. S., "The Export Insurance System and Export Supply of Britain,"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2003-44, University of Connecticut, 2003.

Huszagh, Sandra M. and Greene, Mark R., "FCIA : Help or Hindrance to Expor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49(2), 1982.



## ABSTRACT

## The Effects of the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s of Big and Small-Medium Businesses

Seo-Young Lee\*

Under the WTO system, direct export support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and tax related support is altogether prohibited. This presented an obstacle i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 business and in increasing exports continuously. One of the methods used to solve this problem was to actively leverage export insurance.

In Korea, export insurance services have been conduc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to promote export. Korea has been among the world's active users of the export insurance system.

Given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 export insurance system in the promotion of export.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about discriminating effects of the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 of big and small-medium business. In order to analyze, We introduce a Export Supply Function model. In this paper, We construct two model. The one is about big business, the other is small-medium business.

For empirical analysis, unit-root tes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afety of time series. The results show that all variables are not  $I(0)$  time series. Instead, they are  $I(1)$  time series. To this, cointegration verific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use of Johansen verification method to defin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long-term balanc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results come out as follows. The export insurance of big business has a stronger effect on export than that of small-medium business. The cause of these results is due to the distinct structure of Korea industri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insurance can make the risk decreased. We can say that the export insurance affects the export of a high-risk country.

**Key Words** : Export insurance, Export Supply, Export Promotion, Cointegration

---

\* Adjunct Professor, Baekseok University